



메밀꽃 핀 송악산 14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에 메밀꽃이 아름답게 피자 이를 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상국기자

외국인전용카지노 규제 빚장 풀다

도-업체 최근 간담회
 “코로나로 입장객 급감
 경영 위기 상황 타개를”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무사증 입국 중단 등으로 경영 위기에 내몰린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다른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보다 강화된 규제로 인해 도내 카지노들의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한리일보(9월 29일자 1면) 지적과 관련해 규제 빚장을 풀어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제·지방세 세입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도 육지부와 마찬가지로 케이지(출납창구) 및 테이블 어디에서도 카지노 칩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이주자들은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육지부 카지노처럼 주민등록초본만 제시하면 카지노 입장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전문 모집인이 케이지에서 직접 칩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육지부 카지노와 달리 제주는 전문모집인이 칩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VIP고객들이 제주 카지노 방문을 기피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개발기금 산정 기준 변경은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현행 유지를하기로 했다. 육지부 카지노는 전문 모집인 수수료를 제외한 카지노 순매출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도내 카지노에서는 전문모집인 수수료가 포함된 총매출액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도민인식이 안 좋는데 여기에다 카지노로 벌어들이는 지방세수까지 줄게 되면 도민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도내 카지노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세, 국제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대모기자

“4·3희생자 추념일, 달력에 ‘지방공휴일’ 표기”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전문법에 따른 내년 월력요항에 반영됨에 따라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년 달력 제작 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제주도는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등에 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반영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이후에는 방문설명 등 협의

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8월 12일 내년도 월력요항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월력요항 반영으로 4·3 전국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라며 “2022년 달력에 반영돼 4·3희생자추념일에 전 국민이 함께 추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토, 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 코로나19 신규 10
 14일 <17시 기준> 누적 309

한라포커스 절대보전지역 오름 정상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설치 논란

도 “문제없다” vs 법조계 “법 위반”

조례상 보전지역 기생화산 무선설비 설치 불가
 도 “건설 불가 규정 있어도 문화재청 허가 받아”
 법률전문가 “해석 논란 시 구체적인 규정 우선”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오름에선 레이더 같은 무선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름 정상에 국가 레이더 시설 설치를 허용한 제주도는 그 이유로 이미 문화재청의 허가가 이뤄진 점을 들었다. 건축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제주도의 주장엔 문제가 없을까. 법률전문가는 “말이 안된다. 제주도가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했다.

▶문화재청 허가 받았으니 문제 없다는 도=국토교통부의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가 건설되는 곳은 서귀포시 색달동 한라산 1100고지 인근 기생화산인 삼형제큰오름이다. 한라산국립공원에 포함된 이 오름은 절대보전지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등산로, 산책로, 공원시설 등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도 제주특별법은 절대보전지역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정한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초점은 제주도가 조례를 지키며 건축 행위를 허가했는지에 모아진다. >> 관련기사 4면

조례 제6조 5호는 절대보전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건설할 수 있는 대상을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 규정하면서, 다만 보전지역 오름에선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6호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활용하는 행위, 즉 개발 행위에 대해 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부항공로 레이더는 전파법 상 무선설비에, 삼형제큰오름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절대보전지역에 해당해 조례의 두 규정을 모두 적용 받는다.

국토부는 남부 항공로 레이더를

짓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올해 4월엔 제주도로부터 건축 행위 허가를 받았다.

건축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제주도 논리의 핵심은 문화재청의 허가가 나온 뒤 건축 행위 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보전지역 오름에 대한 레이더 건설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이때부터 이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만든 논리이다. 제주도가 앞서 밝힌 해명처럼 건설 예정지가 오름인줄 몰랐다면 애초부터 보전지역 오름에 대한 레이더 건설 불가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명백한 법 위반”=법률전문가는 제주도가 명백히 제주특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법 내 조문을 해석하는데 논란이 있을때 법조계가 원용하는 법리는 어느 것이(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나이고, 구체적인 것에(적용) 우선 순위를 둔다”며 “조례 5호엔 명확하게 보전지역 기생화산에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지만, 6호엔 문화재보

호법에 따른 건설 허가 대상이 두루 망설하게 적혀 있다. 따라서 레이더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건축 허가는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조례에 심각한 오류가 더 있다고 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은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조례가 규정한 것들은 애초부터 원형 훼손이 동반된 행위”다면서 “조례부터가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은 절대보전지역을 잘 보존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따라서 제주도는 건설 허가 대상이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때 보존하는 쪽으로 무게를 뒤흔다”며 “그런데도 원형 훼손이 불가피한 레이더 건설을 허가했다니 제도의 취지를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레이더 건축 허가에 대한 법률 제검토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다음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공사에 대해선 당사 중지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www.irimgallery.com

이룸갤러리

백광익 화백 초대전

오름 위에 부는 바람





기간. 2021. 10. 2(토) ~ 10. 20(수) 장소. 이룸갤러리 전시실A

운영시간. 매일 10:00 ~ 22:00 (일요일 14:00 ~ 22:00) 홈페이지. www.irimgallery.com 문의. 070-7795-5000



백 광 익 (白光益)

주요 경력

- 개인전 40회 한국(서울, 부산, 광주, 제주), 미국(뉴욕), 중국(북경, 천진)
- 단체전 및 초대전 (360여 회)
- 심사,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 부산, 경기, 제주도, 대구삼성, 행주, 한밭, 단원 미술대전 심사위원

현재

사) 한국미술협회, 부산 혁 동인, 제주 전업작가회
 사) 제주국제예술센터 이사장, 동아육전 전속작가

인사말

이룸갤러리에서 백광익 화백을 모시고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전시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초대한 백광익 선생님은 제주에서 나고 자라 제주 특유의 문화와 자연을 삶으로 체험하면서 다양하고 일관된 작품으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선생님의 작품 안에서는 자신의 삶의 터전 제주의 특별한 자연 유산 '오름'과 '바람'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광익 선생님의 많은 수상 이력에서도 알 수 있는 우수한 실력과, 최근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는 현시대보다 딱 반걸음 정도 앞서가는 현대적 감각은 글로벌 시대 속의 제주의 위상을 높이고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흔의 나이에도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제주의 특별함을 화폭에 담아내며 제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술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시는 백광익 선생님을 초대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 쏟아지는 유성 같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전야같은 태풍의 눈으로 다가오기도 하며, 쓰러지지 않는 고목나무같은 제주인의 강인한 정신이 돋보이기도 하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귀한 걸음 하셔서 백광익 선생님의 제주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룸갤러리 관장 이 회 속

찾아오시는 길 |



오일장 교차로 제주서중 이룸갤러리 순복음교회 신광사거리

이룸갤러리

AD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27-1, 2층

PHONE. 070-7795-5000

E-MAIL. irumgallery@naver.com